2007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1 교시 언 어 영 역

성명		수험번호						3				

1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및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강연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1점]

① 사과의 원산지
② 사과의 재배 방법
③ 사과의 성분
④ 사과의 효능
⑤ 사과를 고르는 법

2. (물음) 다정이가 영희의 태도를 비판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더니.
②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더니.
③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더니.
④ 안 되려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⑤ 뒷간 갈 적 맘 다르고 올 적 맘 다르다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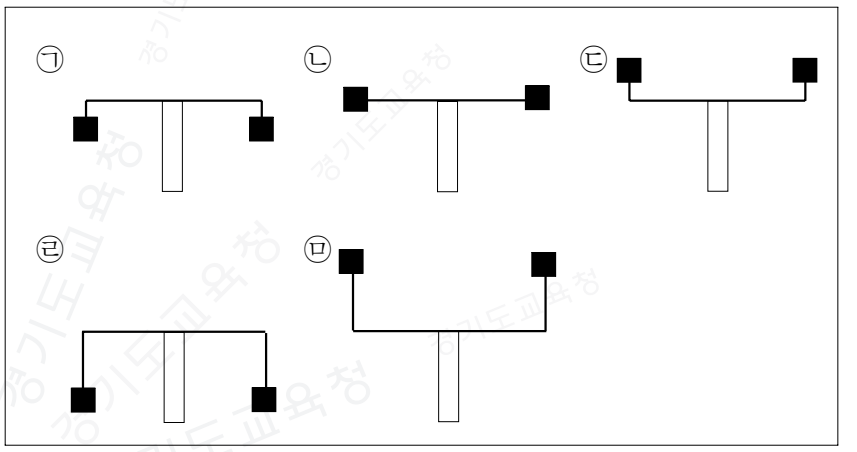
3.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어질 모습과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자 사안은 (　　)라고 대답했습니다.

① 차분하게 "예, 우리 군대가 적을 물리쳤답니다."
② 화를 내며 "국가의 기밀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③ 자랑스럽게 "우리 가문의 힘으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④ 담담하게 "지금은 그대와 바둑을 계속 두고 싶습니다."
⑤ 즐겁게 "제가 짠 계책이 성공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4-5】 이번에는 텔레비전 대담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4. (물음) 저자(남자)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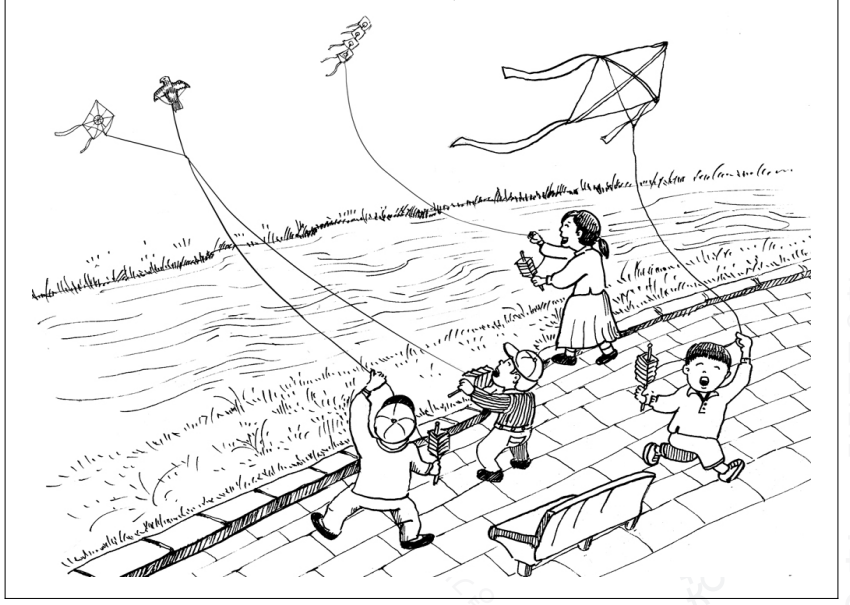
5. (물음) 두 사람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여자는 남자의 말을 정리하며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② 여자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남자의 상세한 설명을 유도하고 있다.
③ 여자는 남자의 답변을 보충하면서 시청자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④ 남자는 여자의 질문에 대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⑤ 남자는 여자의 의견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보기>를 본 후, '인간의 삶의 모습'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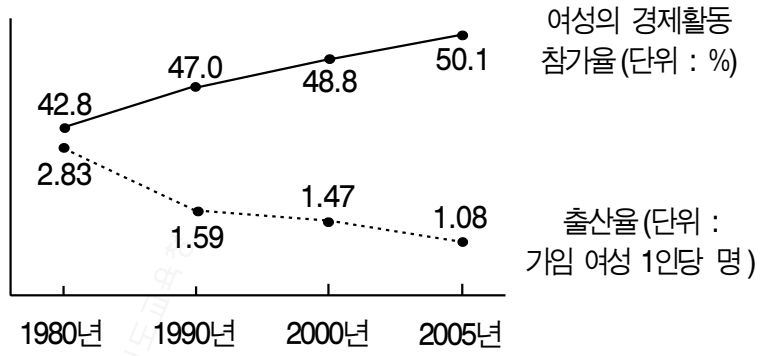


	착안점	내용 구상
①	연의 다양한 높이	인간은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②	연 싸움	인간은 크고 작은 경쟁을 하며 살아간다.
③	연의 다양한 생김새	인간은 각자 개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④	연줄에 묶인 연	인간은 현실적 제약을 받으며 살아간다.
⑤	연의 상승	인간은 이상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7. '가족 형태의 변화'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한다. <보기>의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보 기 >

<자료1>



<자료2>

새로운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통크족, 딩크족이 그것이다. 안락한 노후를 위하여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노인 부부들을 통크족(Two Only No Kids)이라고 한다. 또한 아이를 낳지 않고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기겠다는 젊은 맞벌이 부부를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는 않다. 우리 사회가 낯선 가족의 형태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 신문 기사에서 –

<자료3>

"남편이 없는 싱글맘 가족, 아내가 없는 싱글대디 가족을 이상한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기존의 가부장적 가족 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가족의 가치와 개념이 바뀌고, 그 형태도 다양하게 변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사회적 소수'일 수밖에 없는 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

① <자료1>을 활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와 출산율 저하가 가족 형태 변화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② <자료2>를 활용하여, 새로이 등장한 가족의 형태는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현대인의 욕구가 반영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③ <자료3>을 활용하여,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변화된 가족의 형태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음을 지적한다.

④ <자료1>과 <자료3>을 활용하여, 가족 형태의 변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⑤ <자료2>와 <자료3>을 활용하여, 낯선 형태의 가족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 그리고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8. '지역 축제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를 수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주제 : 지역 축제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Ⅰ. 지역 축제의 방향 ····· ㉠
  1. 지역 축제에 대한 관광객의 외면
  2. 지역 축제에 대한 지역 주민의 무관심
Ⅱ. 지역 축제의 문제점
  1. 지역마다 유사한 내용의 축제 ····· ㉡
  2. 관광객을 위한 편의 시설 낙후
  3. 행사 전문 인력의 부족
  4. 인근 지자체 협조 유도 ····· ㉢
  5. 지역 축제 시기 집중에 따른 참가 인원의 감소
Ⅲ. 지역 축제 발전을 위한 방안
  1. 지역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2. 관광객을 위한 제반 편의 시설 개선
  3. 원활한 축제 진행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 ㉣
  4.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한 축제 시기의 분산
Ⅳ. 결론 : 지역 축제가 가진 한계 극복 ····· ㉤

① ㉠은 하위 항목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지역 축제의 실태'로 바꾼다.
② ㉡은 'Ⅲ-1'를 고려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과다 홍보'로 바꾼다.
③ ㉢은 상위 항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④ ㉣은 'Ⅱ-3'과 연계하여 '지역 축제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으로 고친다.
⑤ ㉤은 주제와 부합하도록, '내실 있는 지역 축제로의 변모 노력 촉구'로 고친다.

9. <보기 2>는 공익광고이다. <보기 1>의 조건에 따라 <보기 2>의 (　　)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 보 기 1 >

1. 문맥에 맞는 내용을 담아낼 것.
2. 두 어휘를 대비하여 활용할 것.
3. 비유의 표현 방식을 사용할 것.

< 보 기 2 >

<자연에서 배우는 삶>

들판에 피어나는 온갖 꽃들이 봄을 더욱 아름답게 합니다. 갖가지 색채로 산을 물들이는 단풍은 가을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자연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　　)

① 똑같은 것이 아름답다는 편견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 꽃처럼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② 지나치게 자신의 개성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일구는 공동체 사회,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회입니다.
③ 흑백 논리에 빠져 서로 헐뜯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두 가지 색깔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는 사회, 우리가 지향할 사회입니다.
④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익숙함이 올바름은 아닙니다. 익숙한 것은 편안함을 주지만 편안함이 올바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⑤ 편을 가르고 서로 배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존중해야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개성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밝혀줄 등불입니다.

10. 다음 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디아스포라의 의미와 존재 의의>

디아스포라(Diaspora)는 외국에 있는 '코리아타운'과 같은 이주민 집단 거주 지역을 ㉠ <u>지시한다</u>. 문화적 정체성이 확연하게 다른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과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아스포라를 형성한다. ㉡ <u>그래서</u> 디아스포라는 단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과 문화적 정체성만을 지키는 곳은 아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는 타 민족·타 인종들의 문화와 서로 교류하고 융합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다인종 사회에서 소수 인종들의 디아스포라는 단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미국의 문화와 ㉢ <u>자연스럽게 융합이다</u>. 곧 미국 내의 디아스포라는 다양한 문화가 만나고 합쳐지는 곳이다. ㉣ <u>더군다나 지금 세계 각국은 자국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으는 상황이다.</u> 문화는 융합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볼 때 디아스포라는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자라나는 바탕으로서의 ㉤ <u>역활</u>도 하는 셈이다.

① ㉠은 문장의 의미에 적절한 서술어인 '지칭한다'로 고친다.
② ㉡은 이어지는 문장과의 의미 연결을 고려하여 '그런데'로 바꾼다.
③ ㉢은 주어와 호응관계를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융합이어야 한다.'로 고친다.
④ ㉣은 글의 전체 흐름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⑤ ㉤은 맞춤법에 맞지 않으므로 '역할'로 고친다.

11. <보기>는 문법 수업 중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요구에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 부사는 일반적으로 뒤에 오는 용언을 수식합니다. 그런데 '의외로'와 같은 부사는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며 문장 내의 위치 이동이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의외로'는 형태를 바꾸어서 서술어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부사를 찾아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볼까요? 다음 예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가. 의외로 그는 성실하게 일했다.
그는 의외로 성실하게 일했다.
그는 성실하게 일했다, 의외로.
나. 그가 성실하게 일했다니 의외였다.

① 연우 :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② 세현 :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③ 서진 : 나는 눈밭에서 데굴데굴 굴렀다.
④ 정연 : 요새는 너무 바빠서 등산을 못 한다.
⑤ 은우 : 나는 배가 아파 이틀 동안 밥을 못 먹었다.

12. <보기>를 참조하여 일상생활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어휘를 고쳐 사용하는 활동을 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보 기 >

당기다 : 1.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 저절로 끌리다.
2. 입맛이 돋우어지다.
3. 물건 따위를 힘을 주어 자기 쪽이나 일정한 방향으로 가까이 오게 하다.
4. 정한 시간이나 기일을 앞으로 옮기거나 줄이다.

댕기다 : 불이 옮아 붙다. 또는 그렇게 하다.

땅기다 : 몹시 단단하고 팽팽하게 되다.

① 활의 시위를 댕기었다.(→당기었다)
② 많이 걸어 종아리가 댕겼다.(→당겼다)
③ 입맛이 땡겨 과식하게 되었다.(→당겨)
④ 예정보다 이틀 땅겨 출발했다.(→당겨)
⑤ 성냥으로 담배에 불을 당겼다.(→댕겼다)

【13－16】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
발돋움하는 발돋움하는 너의 자세는
왜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져서 떨어져야 하는가.

㉠ 그리움으로 하여
왜 너는 이렇게
산산이 부서져서 흩어져야 하는가.

2
모든 것을 바치고도
왜 나중에는
이 찢어지는 아픔만을
가져야 하는가.

네가 네 스스로에 보내는
이별의
이 안타까운 눈짓만을 가져야 하는가.

3
왜 너는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떨어져서 부서진 무수한 네가
왜 이런 ㉡ 선연(鮮然)한 무지개로
다시 솟아야만 하는가.

– 김춘수, 「분수」 –

(나)
나무는 ㉢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零下) 십삼도(十三度)
영하 이십도(二十度) 지상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 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 받은 몸으로, 벌 받는 목숨으로 기립(起立)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 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零下)에서
영상(零上)으로 영상 오도(五度) 영상 십삼도(十三度)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 꽃피는 나무이다

–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

(다)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 되어 있는 꼴
㉤ 둥근 공이 되어

옳지 최선의 꼴
지금의 네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 정현종,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

13. (가) ~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상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②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화자는 사물의 속성을 이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④ 화자가 상대방과 대화하는 말투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⑤ 부정적인 사물과 긍정적인 사물을 대비해 삶을 성찰하고 있다.

14. <보기>와 관련 지어 (가) ~ (다)를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우리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왜 공부를 하는가?',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삶의 모습에 대해 회의하면서 반복되는 일상을 무의미한 시간으로 여기게 된다. 이에 대해 실존주의 작가인 '카뮈'는 '시지프스 신화'를 통해 그의 철학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시지프스는 신의 미움을 사서 산 정상에 바위를 올려놓으라는 형벌을 받는다. 정상에 올려놓으면 다시 밑으로 굴러가는 바위 때문에 시지프스는 정상에 바위를 올려놓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시지프스는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대로 바위를 굴려 정상에 올리려는 행위를 반복한다. 카뮈는 '시지프스 신화'를 통해 인간의 삶의 모습과 이를 대하는 인간의 의지적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다.

① 원구 : <보기>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회의감은 (가)의 화자가 분수를 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과 존재의 한계를 인식했다는 점에서 통할 수 있겠군.
② 미영 : <보기>의 시지프스가 반복하는 행위와 (가)의 솟구쳤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분수의 모습은 유사할 수 있겠군.
③ 철희 : <보기>의 시지프스에게 내려진 형벌과 (나)의 나무가 처한 상황인 겨울은 각각에게 고통을 준다는 측면에서 유사할 수 있겠군.
④ 유나 : <보기>에서 시지프스 신화를 통해 카뮈가 말하려는 인간의 의지적 자세는 (나)에 드러난 나무의 삶의 자세일 수 있겠군.
⑤ 태완 : <보기>의 시지프스가 정상에 올려 놓아야할 바위는 (다)의 떨어져도 다시 튀는 공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15. (나)와 (다)의 표현상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① (나)와 (다) 모두, 같거나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나)와 (다) 모두, 중심 소재가 변하는 모습을 감각적인 시어로 묘사하고 있다.
③ (나)와 (다) 모두,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반복하여 대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④ (나)는 과거형 어미, (다)는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 대상의 모습을 포착하고 있다.
⑤ (나)는 시각적 이미지, (다)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6.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을 통해 분수가 다시 솟구쳐 오르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② ㉡은 좌절을 딛고 올라가는 분수의 비극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③ ㉢을 통해 나무가 가진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 ㉣은 나무가 이루고자 한 것이 성취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⑤ ㉤을 통해 원만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다.

【17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FTA(자유무역협정)는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관세를 비롯한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한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확산 추세에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자들은 그 이유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또한, FTA로 인한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 멕시코의 사례가 교훈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모든 회원국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점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점에 비해, FTA는 협상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며, 당사국 간의 배타적 호혜조치로 실질적인 이익을 높여주고, 관심 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 경제 공동체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 중의 하나로, 수출이 국내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통상 마찰이 심해지면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래서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대상국과의 통상 마찰을 피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 FTA 협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에서 미국과의 협정은 2007년 상반기에 체결되었다. 그런데 협상이 시작된 이후로 체결이 된 지금까지 FTA가 우리나라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미국과의 FTA 발효 후 15년간 국내경제 각 분야의 이해득실을 분석한 전문 기관들의 자료를 보면 대체로 제조업 분야가 수출 증대로 인해 크게 성장하고 농수산 분야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조업은 자동차 분야에서만 15년간 총 163억 달러의 수출액 증가가 예상된다. 자동차 생산액 증가는 15년간 총 43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반해 농업 분야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분야는 역시 한우 농가로 나타났다. 현재 40%인 쇠고기 수입 관세는 15년간 같은 비율로 줄어 15년 후부터는 완전 철폐된다. 이에 따라 국내 쇠고기 생산은 1~5년에는 연평균 365억 원 감소했다가, 11~15년에는 한해 3,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양돈 농가의 피해도 한우 농가와 맞먹을 것으로 집계됐다. 농업 분야 중 축산농가의 피해가 3분의 2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고, 축산·과수·곡물 등 전체 농업 분야의 생산 감소액은 15년간 10조 46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철폐되면 수출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또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낮아지므로 소비자 가격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농산물 앞에서 한국 농업인들이 '무장 해제' 당했다는 표현이 신문 보도에 실릴 정도로 농업 분야의 전망을 어둡게 보는 시각들이 많다. 이제는 농업을 비롯하여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들에 대한 대책을 구체화하는 데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1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자유무역협정의 개념을 서술하고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② 협정 체결의 이해득실에 대해 언급하여 협정의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③ 국내 산업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④ 구체적인 수치를 인용하여 독자의 상황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⑤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18. 위 글을 읽고 심화 학습을 위해 구상한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ㄱ.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세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ㄴ. 국산 자동차의 대 미국 수출액은 어떻게 변화할까?
ㄷ. 현재 정부는 미국 외에 어떤 나라와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가?
ㄹ. 국내 산업 중 자동차 분야와 농업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 한미 FTA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보기>는 인터넷 게시판에 오른 글의 일부이다. <보기>의 글쓴이가 위 글을 읽고 제시할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결국 한미 FTA가 체결되었다. 수출로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 판 돈으로 식량을 수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에는 절대로 수긍할 수 없다. 세상 물정 모르는 말이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식량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자동차 판 돈을 다 쏟아 부어도 충분한 식량을 수입하지 못할 때가 온다. 허름한 옷을 입고 허름한 집에서는 살 수 있지만 먹을 것이 부족하면 살 수 없다. 생존을 위한 최소량의 식량이라도 우리 손으로 직접 생산해야 한다.

① 가능한 한 많은 식량을 수입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국제 식량 시장의 변동을 예측하여 농산물 수출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③ 국내 농축산업 분야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겠습니다.
④ 주요 농축산 생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유통망을 정비하고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⑤ 제조업 분야에 이익을 재투자해서 절대적인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0. ㉠의 이유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경쟁을 통해 관련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②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차단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
③ 당사국들의 배타적 호혜 조치로 실질적인 이익을 높여 준다.
④ WTO 다자협상에 비해 단기간에 합의점을 이끌어내기가 쉽다.
⑤ 다른 나라 사이의 협정으로 인한 반사적 피해에 대응할 수 있다.

【21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강남홍은 훌쩍 몸을 솟구쳐 허공으로 날아오르며 번쩍 칼을 떨어뜨려 도끼를 휘두르는 뇌천풍의 투구를 쪼개어 버렸다.

양원수는 참을 수 없었다. 친히 대결해 보고자 들먹들먹하는데 소사마가 앞을 가로막고 대신 나섰다. 그러나 ⓐ <u>방천극을 잘 쓰는 명장 소사마도 강남홍의 놀라운 재주와 칼은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u>.

"아차!"

소사마는 극도로 긴장하였다. 강남홍의 칼에 맞아 죽나 보다 하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강남홍은 하늘에서 나는 듯 명랑한 소리로 외칠 뿐이었다.

"㉠ 하늘이 내신 명장을 내 손으로 어찌 죽이리요. 살길을 열어 줄 것이니 장군은 빨리 원수께 돌아가 군사를 거두어 물러가라 하시라."

양원수도 싸움을 내일로 미루는 수밖에 없었고, 강남홍도 군사를 거두어 돌아갔다. 그러나 싸움에 이기면 이길수록 강남홍의 고민은 컸다.

'어찌 만왕을 위해서 나의 고국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 일장일졸도 내 조국의 군사를 죽이고 싶지 않으나, 그렇다고 스승의 명을 받들고 싸움터에 나와 그대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달 밝은 밤이었다. 강남홍은 옥퉁소를 가슴에 품고 산에 올라 명군의 진영을 살피며 한 곡조를 불어 보았다. 이 퉁소 소리를 듣자 명나라 진영은 일대 혼란을 일으켰다. 장수·졸병할 것 없이 고향 그리운 우수에 잠겨서 눈물을 훌쩍거리는 자까지 있었다.

[A] 이 광경을 본 양원수는 언젠가 벽성선이 준 옥퉁소를 꺼내서 한 곡조를 불어 보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랬더니 당장에 장수와 병졸들은 명랑한 기분을 회복하고 사기가 충천해지는 것이 아닌가. 옥퉁소 소리. 어여쁜 여인 같으면서도 용맹무쌍한 적장. 양원수는 날이 갈수록 의심을 풀길이 없었다.

마침내 양원수와 강남홍은 일 대 일로 대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양원수 진두로 내달았을 때 강남홍도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며 가까이 덤벼들다가, 일견해서 명나라 진영의 원수가 바로 양창곡, 양공자임을 똑바로 알아차렸다.

양원수는 아직도 강남홍을 알아보지 못하고 창을 높이 들어 찌르려고 덤벼드는 아슬아슬한 찰나.

"상공께선 강남홍을 잊으셨나이까?"

구슬같이 맑은 강남홍의 음성. 이 말에 양원수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강남홍은 오늘 밤에 단 둘이서 만날 것을 넌지시 약속하고 말고삐를 돌려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강남홍은 손삼랑에게만 알리고 명나라 진영으로 살며시 건너와서 양원수를 만났다.

양원수는 강남홍의 모습을 두 눈으로 또렷이 쳐다보면서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치 못하고 어리둥절하였다.

"홍랑! 그대 죽어서 혼이 나타난 것이 아니요? 정말 산 사람이 날 찾아온 것이요? 그대 죽은 것을 잘 알고서야 어찌 살아왔다고 믿으리요!"

강남홍은 흐느껴 울며 목멘 소리로 대답하였다.

"첩은 상공께서 사랑해 주신 덕택으로 수중고혼(水中孤魂)이 되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나이다. 여러 사람의 눈이 두려우니 그것만이 근심되나이다."

양원수는 누가 볼까 두려워하여 즉시로 장막을 쳐서 가리우고 그제서야 강남홍의 손을 덥석 잡았다. 강남홍도 양원수의 손을 마주 잡고 오열(嗚咽)에 젖을 뿐.

"모든 것이 꿈만 같사옵니다."

"이상하도다. 홍랑은 여자의 몸으로 이다지 먼 곳까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명장(名將)이 되어서 만왕을 구하러 나섰으니."

여기서 강남홍은 지금까지의 경과를 비로소 자세히 양원수에게 설명해 들려주었다.

– 「옥루몽」 –

21. 위 글을 통해 짐작할 수 없는 것은?

① 양원수는 강남홍이 죽었다고 믿고 있었다.
② 강남홍과 양원수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③ 양원수의 무예가 강남홍의 무예를 능가한다.
④ 강남홍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다.
⑤ 강남홍이 참전한 이유는 자신의 사부와 관련이 있다.

22. ㉠에 드러난 강남홍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대방보다 실력이 부족하지만 오로지 체면 때문에 허세를 부리고 있다.
② 전쟁에 이미 승리하였으므로 굳이 상대방을 살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③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나와 있긴 하지만 상대방과 싸우고 싶어 하지 않고 있다.
④ 상대방이 워낙 뛰어난 장수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⑤ 상대방을 제압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돌아오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23. <보기>는 위 글 앞부분의 일부이다. [A]와 관련 지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어느 날 서로 몇 잔 술을 마시고 취흥이 일자, 벽성선은 옥퉁소를 들고 달을 향해 불기 시작했다. 묘한 재간이 숨어 있는 옥퉁소였다. 퉁소 소리 한번 일어나자, 산이 울고 초목이 진동하고 잠자던 학은 꿈을 깨어 날고 미친바람이 일고 흙이 날아올랐다. 나중에는 벽성선은 무엇을 생각하였음인지 옥퉁소를 부는 법을 양창곡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

"상공의 상에는 다소 살벌하신 기운이 있사옵니다. 머지않아 반드시 싸움터에 나가실 듯하오니, 이 옥곡(玉曲)을 배워 두시면 쓰실 날이 있을까 하옵나이다."

① <보기>의 사건은 [A]의 복선 역할을 하고 있다.
② <보기>의 벽성선은 예지력이 있음을 [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보기>와 [A]를 통해 볼 때 양원수는 적장이 벽성선임을 확신하고 있다.
④ <보기>와 [A]를 통해 볼 때 벽성선은 양원수에게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⑤ <보기>의 옥퉁소 소리는 자연의 변화를 일으키지만, [A]에서는 인간 심리의 변화를 가져온다.

24. ⓐ에 나타난 '소사마'의 처지에 적용할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사생결단(死生決斷)
② 오월동주(吳越同舟)
③ 견문발검(見蚊拔劍)
④ 속수무책(束手無策)
⑤ 전전반측(輾轉反側)

【25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2의 제곱근*은 a다. 예를 들어 4의 제곱근은 2이다. 2를 제곱하면 4가 되기 때문이다. 같은 식으로 9의 제곱근은 3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지만 144처럼 수가 커지면 풀이법을 쓰지 않고서는 제곱근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풀이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수학사에서는 기존의 풀이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을 고안한 천재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의 한 사람이 조선시대 홍길주다. 그는 전통적 방법이나 서양식 방법과는 다른 획기적인 제곱근 풀이법을 개발했다. 그러면 그의 풀이 방법은 여타의 방법과 어떻게 다른 걸까?

[가] 먼저 동아시아 전통수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고전인 ㉠구장산술(九章算術)에서 제시한 제곱근 풀이법의 원리를 알아보자. 이 풀이법의 핵심은, 144의 제곱근이 'A십B'(식으로 나타내면 10A+B)일 것으로 예상하고 각 자릿수 A, B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144의 제곱근을 구할 때, 10의 제곱이 100이고 20의 제곱이 400이므로, 144의 제곱근은 10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을 것이니 A는 1이라고 예상한다. 그 다음 10의 제곱인 100을 원래 수 144에서 빼서 나머지 44를 얻는다. 그 다음 일의 자릿수를 알아내기 위해 (2×10+B)×B를 44로 놓고 생각해서 B는 2라는 것을 찾아낸다. 그래서 144의 제곱근이 12임을 알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넓이가 144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먼저 각 변을 10으로 잘라서 생기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 그 나머지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을 일반화한 방정식의 해법인 ㉡증승개방법(增乘開方法)은 예상한 값과 실제값의 차를 이용한 반복적 계산으로 제곱근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144의 제곱근을 구하기 위한 방정식은 $x^2=144$이고, 이는 $x^2+0x-144=0$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 다음 이 방정식에서 어떤 값을 근이라고 예상한 후, 이 실제값과 예상한 값의 차를 근으로 하는 새로운 방정식으로 변형시킨다. 이 방정식을 이용하여 근에 좀 더 가까운 해를 다시 설정해 또다시 새로운 방정식을 얻는 과정을 반복해서 점차 실제값에 접근해 가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제곱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다항방정식의 해법이라는 점에서 구장산술의 방법보다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제곱근의 최고 자릿수를 예상한 뒤 적당한 수를 원래 수에서 빼면서 차례로 낮은 자릿수를 얻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근본 원리는 구장산술과 같다.

그런데 ㉢홍길주의 제곱근 풀이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원래 수를 반으로 나눈 다음, 그 수에서 1을 빼고, 다시 1을 뺀 나머지에서 2를 빼고, 또 다시 2를 뺀 나머지에서 3을 빼 간다. 이런 식으로 1부터 자연수를 순서대로 빼 나가다가 더 이상 뺄 수 없을 때 이 수를 2배해서 다음에 빼고자 했던 수와 비교해 본다. 비교 결과 두 수가 같으면 그 수가 제곱근이다. 그의 방법은 처음 수를 2로 나누는 과정과 끝에 남은 수를 2배하는 과정만 제외하면, 자연수를 순서대로 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다.

구장산술의 방법과 증승개방법은 원리적으로 잘 만들어진 계산법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고 계산과정도 복잡하다. 그러나 홍길주의 방법은 쉽다. 홍길주는 제곱근 풀이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새로운 풀이법을 고안해 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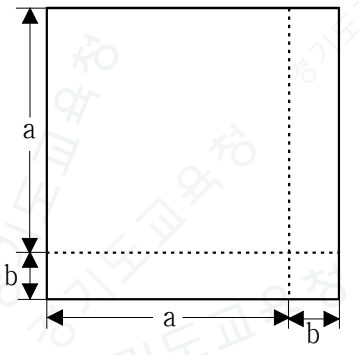
* 제곱근 : 현재 수학교과서에서는 a^2의 제곱근을 $\pm a$라고 배우지만, 동양의 전통수학은 실생활 문제 해결 위주여서 음수 제곱근을 생각하지 않았다.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제곱근의 최고 자릿수를 예상한 뒤에 답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② ㉡은 예상한 값과 실제값의 차를 이용한 반복적 계산으로 답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③ ㉡이 ㉠보다는 개선된 풀이 방법이다.
④ ㉢은 ㉠과 ㉡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발전시킨 방법이다.
⑤ ㉠, ㉡, ㉢ 모두 제곱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26. [가]와 <보기>를 관련 지어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의 144의 제곱근을 구하는 방법을 기하학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단, 두 점선은 정사각형인 각 변과 평행하다.)

① 수환 : a는 [가]의 'A십'을 의미하겠군.
② 명성 : b는 [가]의 'B'를 의미하겠군.
③ 혜영 : a와 b를 합하면 12가 되겠군.
④ 화수 : '(a+b)×(a+b)'는 144가 되겠군.
⑤ 상길 : '(a×b)+(a×b)'가 [가]의 '(2×10+B)×B'에 해당되겠군.

27. 홍길주의 방법으로 '289의 제곱근'을 구하려고 한다. 그 풀이 과정을 <보기>처럼 나타냈을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문제] 289의 제곱근을 구하라.
[답] 17
[풀이 과정]
289를 [ⓐ](으)로 나눈다.
1을 뺀다. (144.5−1=143.5)
2를 뺀다. (143.5−2=141.5)
[ⓑ]을/를 뺀다. (141.5−[ⓑ]=138.5)
⋮
14를 뺀다. (53.5−14=39.5)
15를 뺀다. (39.5−15=24.5)
[ⓒ]을/를 뺀다. (24.5−[ⓒ]=8.5)
그 다음은 남아 있는 수가 8.5이므로 17을 뺄 수 없다. 그러면 남은 수에다가 [ⓓ]배 해 본다. 이 수가 빼려고 했던 수 [ⓔ]과 같다. 그러므로 답은 17이다.

① ⓐ : 2 ② ⓑ : 3 ③ ⓒ : 16
④ ⓓ : 3 ⑤ ⓔ : 17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원래 소박하셨던 아버님은 읍내 출입이 있을 때마다 40리나 되는 먼 길을 아예 걷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새벽 일찍이 길을 뜨셨다가 으레껏 황혼이 지나서야 오셨다. 심한 경우는 백 리가 넘는 전주 나들이도 보행을 마다하시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내가 겨우 열 살을 지난 뒤부터 시작한 마중이 제법 익숙해졌다. 외지에 나와 중학을 다닐 때 방학을 맞아 집에 돌아올 때면 나는 이 마중 같은 일로 학자(學資)*를 토색질하던 불계수(不計數)*의 빚을 갚으려고 했었다. 확실히 그런 예우가 있고 나면 책값을 주실 때 관대하셨다. 그리고 우람스런 머슴을 앞세우고 깜박이는 초롱불로 길을 밝히면서도 도깨비 얘기나 들으면서 오싹오싹한 밤길을 걷는 데 짜릿한 재미도 약간 느끼곤 했었다. [A]

그 밤도 그러한 몇 가지 속셈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럴수록 목적을 위해선 아버님을 꼭 마중해야 된다는 다짐을 굳혔었다. 이윽고 멀리 펄럭이는 하얀 두루마기를 보곤, 평소 응석 한 번 부려 보지 못하고 자란 주제에 큰 소리로 "아버지"를 외쳤다. 그리고 우리 형제는 장신의 아버지 뒤를 따라 졸랑졸랑 돌아왔다. 여느 아빠처럼 두 팔에 형제를 거느리고 사탕이라도 한 개 속주머니에서 꺼내 주셨으면 했지만, 그렇게 엄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지금은 더욱 그립다. 도연명(陶淵明)이가 낙향할 때 문간에서 마중했던 그의 치자(稚子)보다 우린 더욱 어리석어서 먼 길을 두근거렸는지 모른다.

우리들 자식이 원행(遠行)의 아버님을 마중하던 곳은 먼 고개를 넘어 돌들이 산을 이룬 성황 고개요, 비단물이 반짝이는 청강수(淸江水) 징검다리요, 숨이 깔딱이는 높은 비석재였다. 요즘처럼 편리하게시리 문전에서 영송하는 것은 사무적이어서 싫다. 통금 5분 전에 귀가하는 탕부(蕩父)나 낭아(浪兒)가 아닌데도 벨소릴 듣고서야 슬리퍼를 끌며 발발이와 함께 문을 열어 주는 그런 것은 더욱 싫다. <중략>

살벌한 오늘의 서울에서도 때로 예고 없이 소낙비가 내리는 초저녁 주택가 입구를 스치면, 많은 아주머니나 어린 자녀들이 우산을 들고 누구를 기다리는 풍경을 본다. 지금쯤 어느 대폿집에서 술타령하는 남편이나 아빠를 기다리는 뜨겁고 목마른 풍경을 본다. 그럴 때마다 나는 초승달이 지고 까맣게 어두운 고개에서, 지금은 다시 뵈올 수 없는 아버지의 하얀 두루마기를 기다리느라 우리 형제가 등을 맞대고 추위를 견디었던 무섭도록 적막한 밤이 그립다.

– 허세욱, 「초승달이 질 때」 –

* 학자(學資) : 학비
** 불계수(不計數) :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

(나)

三三五五(삼삼 오오) 冶遊園(야유원)에 새사람이 나단 말가. 꽃 피고 날 저물 제 定處(정처)없이 나가 있어, 白馬金鞭(백마금편)으로 어디어디 머무는고. 遠近(원근)을 모르거니 消息(소식)이야 더욱 알랴. 因緣(인연)을 긋쳐신들 생각이야 업슬소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마르려믄, 열두 때 김도 길샤 설흔 날 支離(지리)하다. 玉窓(옥창)에 심은 梅花(매화) 몇 번이나 픠여진고. 겨울 밤 차고 찬 제 자최눈 섯거 치고, 여름 날 길고 길 제 구즌 비는 므스 일고. 三春花柳(삼춘 화류) 好時節(호시절)에 景物(경물)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蟋蟀(실솔)*이 床(상)에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헴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 허난설헌, 「규원가」 –

* 蟋蟀(실솔) : 귀뚜라미

(다)

聊將月老訴冥府　월하노인을 통하여 저승에 하소연해
來世夫妻易地爲　내세에는 내가 아내 되고 그대가 남편 되어,
我死君生千里外　나는 죽고 그대는 천 리 밖에 살아서,
使君知有此心悲　그대에게 이 슬픔 알게 했으면.

– 김정희, 「배소만처상(配所輓妻喪)」 –

28.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 ~ (다)에는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② (가)는 과거 상황을, (나)는 현재 상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③ (가)에는 세태 비판이, (나)에는 대상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 있다.
④ (가)와 (다)에는 화자의 처지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담겨 있다.
⑤ (나)와 (다)의 화자는 독백적 어조를 취하고 있다.

29. (가) ~ (다)의 화자 '갑·을·병'이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할 때, 그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갑] : 제가 아버지의 귀가를 기다렸던 것처럼 당신[을]도 임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군요.
② [을] : 하지만 사계절이 바뀌어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 고통스럽네요.
③ [병] : 그래도 저와는 달리 당신[을]은 보고 싶은 사람을 이승에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④ [을] : 그 사람이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 만남의 기대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⑤ [병] : 결국 당신[을]이나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로군요.

30. (나)의 ⓐ와 <보기>의 '실솔'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님 글인 想思夢(상사몽)이 ⓑ蟋蟀(실솔)의 넉시되야
秋夜長(추야장) 깊픈 밤에 님의 房(방)에 드럿다가
날 닛고 깁히 든 줌을 씨와 볼가 ᄒᆞ노라.　– 박효관 –

① ⓐ는 지조와, ⓑ는 변절과 관련이 있다.
② ⓐ는 능동적 존재이고, ⓑ는 수동적 존재이다.
③ ⓐ는 회상의 대상이고, ⓑ는 회상의 매개체이다.
④ ⓐ는 비유적 의미로, ⓑ는 일상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는 화자의 슬픔을, ⓑ는 화자의 그리움을 내포하고 있다.

31. [A]를 시나리오로 고쳐 쓸 때, ㉮ ~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S#10. 밤길

초롱불을 든 머슴을 따라 두 형제가 캄캄한 길을 걷고 있다.

동생: 형, 아버지가 오늘 전주에 가신다고 했지.

세욱: ㉮ 응, 먼 길을 걸어서 돌아오시니까 늦으시나 봐. ㉯ (독백으로) 책을 몇 권 사야 하는데, 이렇게 아버지를 마중하면 책값을 주시지 않을까.

동생: ㉰ (앞에 가는 머슴을 보며) 아저씨, 재미있는 옛날이야기 하나 해 주세요.

머슴: 그럴까요.

이때 앞쪽에 하얀 두루마기가 어렴풋이 보인다. 형제는 반색을 하며 동시에 '아버지'를 부른다. 어둠을 뚫고 아버지가 나타난다.

아버지: ㉱ (형제를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어이구 이 녀석들, 무서운데 집에 있지 왜 여기까지 나왔어.

S#11. 서재

성인이 된 세욱이 사진첩을 넘겨 아버지의 사진을 찾고 있다. 아버지의 사진 C.U.

세욱: ㉲ (사진을 들여다 보며)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네.

① ㉮ ② ㉯ ③ ㉰ ④ ㉱ ⑤ ㉲

32. (다)와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화자의 태도는?

< 보 기 >

견우 직녀도 이 날만은 만나게 하는 칠석날
나는 당신을 땅에 묻고 돌아오네.
안개꽃 몇 송이 땅에 묻고 돌아오네.
살아 평생 당신께 옷 한 벌 못 해 주고
당신 죽어 처음으로 베옷 한 벌 해 입혔네.
당신 손수 베틀로 짠 옷가지 몇 벌 이웃에 나눠 주고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돌아오네.
은하 건너 구름 건너 한 해 한 번 만나게 하는 이 밤
은핫물 동쪽 서쪽 그 멀고 먼 거리가
하늘과 땅의 거리인 걸 알게 하네.
당신 나중 흙이 되고 내가 훗날 바람 되어
다시 만나지는 길임을 알게 하네.
내 남아 밭 갈고 씨 뿌리고 땀 흘리며 살아야
한 해 한 번 당신 만나는 길임을 알게 하네.

– 도종환,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

① 내적 갈등을 격정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② 시적 대상에 대한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
④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오를 성찰하고 있다.
⑤ 성실한 삶을 통해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있다.

【33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1.4후퇴 당시 중공군을 피해 월남하던 '나'는 두찬, 광석, 하원을 만난다. 부산에 도착한 네 사람은 화찻간에서 잠을 자며 고향에 갈 날을 기다린다.

"더 먹어라." / "응." / "더 먹어." / "너 더 먹어."

꽁치토막일망정 좋은 반찬은 서로 양보들을 했다.

어두운 화찻간 속에서 막걸리 사발이나 받아다 마시면, 넷이 법석대곤 했다.

우리들 중 가장 어린 하원이는 늘 무언가 풀어헤치듯,

"야하, 부산은 눈두 안 온다, 잉. 어잉 야야, 벌써 자니 이 새끼, 벌써 자니. 진짜, 잉. 광석이 아저씨네 움물 말이다. 눈 오문 말이다. 뒤에 상나무 있잖니? 하얀 양산처럼 되는, 잉. 한번은 이른 새벽이댔는데 ㉠ 장자골집 형수, 물을 막 첫 바가지 푸는데 푸뜩 눈뭉치가 떨어졌다, 그 형수 뒷머리를 덮었다. 내가 막 웃으니까, 그 형수두 눈 떨 생각은 않구, 하하하 웃는단 말이다. 원래가 그 형수 잘 웃잖니?

광석이는 히죽히죽 웃으면서,

"㉡ 토백이 반원 새끼덜, 우릴 사촌끼리냐구 묻더구나. 그렇다니까, 그러냐아구, 어쩌구. 그 꼬락서니라구야. 이 새끼 벌써 취핸?"

조금 사이를 두어,

"야하, 언제나 고향 가지?"

두찬이는 혀 꼬부라진 소리로,

"이제 금방 가게 되잖으리." / "이것두 다아 좋은 경험이다."

"암, 그렇구말구." / "우리, 동네 갈 땐 꼭 같이 가야 된다, 알겐."

"아무렴, 여부 있니. 우리 넷이 여기서 떨어지다니, 그럴 수가. 벼락을 맞을 소리지. 허허허, 기분 좋다. 우리 더 마실까. 한 사발씩만 더, 딱 한 사발씩."<중략>

이럭저럭 한 달쯤 무사히 지났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갈 날은 갈수록 아득했다. 이 한 달 사이에 두찬이는 두찬이대로, 광석이는 광석이대로 남 모르게 제각기 다른 배포가 서게 된 것은(배포랄 것까지는 없지만) 그들을 탓 할 수만 없는 일이었다. 쉽사리 고향으로 못 돌아갈 바에는 늘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다, 달리 변통을 취해야겠다, 두찬이와 광석이는 나머지 셋 때문에 괜히 얽매여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게 된 것이었다. 자연 우리 사이는 차츰 데면데면해지고*, 흘끔흘끔 서로의 눈치를 살피게끔 됐다.

광석이는 애당초가 주책이 없다 할까 주변이 있다 할까 (㉮) 토박이 반원들과 얼려 막걸리 사발이나 얻어 마시곤 했고, 구변 좋게 보탬을 해서 북쪽 얘기를 해쌓고, 이렇게 며칠이 지났을 땐 어느덧 반원들은, 나나 두찬이나 하원이와는 달리, 광석이만은 오래전부터 사귀어 온 친구처럼 손을 맞잡고는,

"나왔나!" / "오냐, 느 형님 여전하시다."

"버르장머리 몬 쓰겠다. 누구보꼬 형님이라 카노."

"자네 언제부터 말버르장머리하곤, 허 요새 세상이 이래 노니."

농담조로 수인사가 오락가락했으니, 나나 두찬이나 하원이는 광석이의 이런 꼴을 멀끔히 남 바라보듯 건너다봐야 했다. 광석이는 차츰 반원들과 얼려 왁자지껄하는 데 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았고, 날이 갈수록 자신만만해졌다.

그 꼴사나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 더더구나 주변머리 없고 무뚝뚝하고 외양보다 실속만 자란 두찬이는 저대로 뒤틀리는 심사를 지닌 채 다른 궁리를 차리는 모양이었다. 사실 이즈음

부터 두찬이는 ㉢ 얌생이*를 해도 다만 밥 두 끼 값이나 골고루 나누어 주는 법이 없이, 일판만 나오면 혼자 부두 앞 틈 사이 샛길을 허청허청 돌아다녔다. 이런 두찬이는 으레 술이 듬뿍 취해 화찻간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하원이는 자주 울먹거렸다.

"야하, 부산은 눈두 안 온다, 잉."

하고 애스럽게 지껄이곤 했다.

되잖은 청으로 타령 같은 것을 부르는 두찬이의 취한 목소리가 바람결에 가까워오면 화찻간은 무엇인가 덮어씌운 듯 조용해졌다.

"문 열어라."

드르르 문을 열면, 싸느다란 ㉣ 부두 불빛이 푸르무레하게 화찻간에 찼다. 두찬이는 문간에 막아서서, 비트적거리며 한참을 허허허 웃어 댔다. 하원이는 한쪽 구석에서 또 울먹울먹거렸다. 화찻간으로 기어 올라온 두찬이는 헉헉 숨차하면서 광석이부터 찾았다.

"야, 광석아, 이 새끼야, 이 새끼 어디 갔니?"

누운 채 광석이는 귀찮은 듯이 쨍한 목소리로,

"왜애, 왜 기래, 왜?"

"나, ㉤ 술 마셨다. 나 오늘 얌생이했다. 사아지* 두 벌, 근사하더라, 나 혼자 가지구 나 혼자 마셨다. 왜, 못마땅허니? 못마땅할 것 없어, 잉, 이 새끼야."

광석이는 발끈 일어나며,

"취했음 자빠져 잘 거지. 누구까 지랄이야. 어디 가서 혼자만 처마시군."

"말 자알 헌다. 그래 난 혼자만 마셨다. 넌 부산내기덜과 왁자고오멘서 마시구. 난 내 돈 내구 먹지만, 넌 술 사주는 사람 두 많두나. 원래 사람이 잘났응이까, 인심이 좋아서. 난 못났구. 그렇지만 무서울 건 쬐외꼼두, 요만침두 없어. 두구 보렴, 두구 봐, 보잔 말야."

하원이가 일어나 앉아 소리내어 쿨쩍거리기 시작했다.

광석이는 갑자기 부러 악을 쓰듯 목대를 짜서,

"남쪽 나라 십자성은 어머님 얼굴……."

두찬이도 광석이에 지지 않고 온 화찻간이 떠나갈 듯,

"아, 신라의 밤이여, 아, 신라의 밤이여, 타아향살이 십 년에……, 어떻게 되나 보자꾸나, 될 대루 돼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쥑일 새끼야."

발길로 화차 벽을 텅텅 내찼다.

하원이는 어느새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

– 이호철, 「탈향(脫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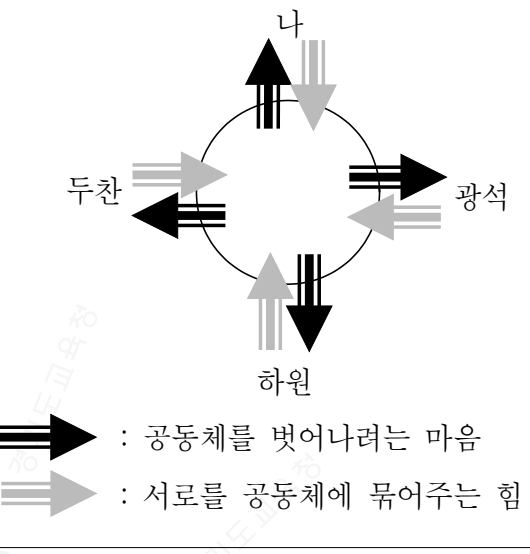
* 데면데면하다 :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친밀감이 없이 무뚝뚝하다.
** 얌생이 : 남의 물건을 조금씩 훔쳐 내는 짓을 속되게 이르는 말
*** 사아지 : 옷감의 한 종류

3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물의 행동과 심리변화에 따라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② 사투리와 비속어를 사용하여 사실적인 느낌을 살리고 있다.
③ 서술자는 사건에 개입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④ 전란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인물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⑤ 요약적 서술과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한 장면 제시를 함께 활용하고 있다.

34. <보기>의 틀을 통해 위 글을 분석하고자 할 때, ㉠~㉤ 중 ⇒ 에 해당하는 것은?

< 보 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35. <보기>를 통해 위 글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소설 속의 인물은 ⓐ 특정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특정한 환경이 인물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면 각 인물은 자신의 성격과 처지를 바탕으로 이를 인식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 대응 방식을 보여준다.

① 두찬보다 하원은 ⓐ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② '나'와 두찬은 점차 ⓐ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③ 하원에 비해 '나'는 다양한 ⓑ를 시도하고 있다.
④ 광석의 ⓑ에 대해 '나'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⑤ 광석과 두찬의 갈등은 ⓑ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다.

36. '주관 없이 함부로 덤비는 모양'을 뜻하는 말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은?

① 허둥지둥 ② 엄벙덤벙 ③ 넙죽넙죽
④ 허겁지겁 ⑤ 다짜고짜

【37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때 사진은 기록성을 고유한 특성으로 삼았다. 다른 예술 매체와 구분되는 사진 매체의 존재 이유를 기록성에서 찾기도 했다. 사진이 기록성을 고유한 특성으로 삼게 된 것은 결코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숙명 때문이다.

(나) 그런데 현대 사진은 기록성에서 벗어나 점차 추상화되어 가고 있다. 사진이 추상화되어 간다는 것은 사진 매체의 특성으로 볼 때 모순적 현상이다. 다른 모든 예술은 상상만으로도 얼마든지 작품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물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사진은 구체적 사물을 전제하고서야 작품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사진은 추상화되어 가고 있는가? 사진은 구체적인 사물을 담는 매체이지만 사진이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 곧 작가의 생각이나 느낌은 추상적 관념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추상적 주제를 담아야 할 사진이 추상을 지향하는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다.

(다) 그러나 '사진의 추상화'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추상'이란 구체성을 극복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지만 사진은 구체적 모습을 벗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사진에 찍힌 사물은 작가가 해석한 주관적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가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아직 ⓐ 해석되지 않은 사물 자체로 인식된다. 사진에 찍힌 여인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여인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는데, 사람들은 여인의 마음을 느끼기 이전에 여인의 모습만을 본다. 이러한 구체적 형태가 사진의 추상화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 요인이다.

(라) 그런데 간혹 사진의 추상을 회화의 추상과 같은 의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회화는 사물의 형태에 묶이지 않는 유연한 매체임에 비해, 사진은 사물의 외형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 완고한 매체이다. 이처럼 두 매체는 서로 다른 예술 양식이므로 회화적 추상은 사진적 추상의 모범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회화적 추상을 그대로 사진에 적용해서 추상 사진이라 말한다. 그들이 추상 사진이라 분류한 것을 보면 영상이 흔들렸거나 초점이 흐려진 것, 또는 추상 형태를 모방해서 사물의 형태를 왜곡시켜 놓은 것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추상회화의 형태적 모방일 수는 있어도 추상 사진일 수는 없다. '추상'이란 사물에서 어떤 속성 또는 특성을 '추출한' 형태여야 하기 때문이다. 초점이 흐리거나 떨린 사진은 기계적 조작에 의해 상이 왜곡된 것이지 사물의 외형에서 '추출되어' 걸러진 상이 아니기 때문에 추상 사진이 될 수 없다.

(마) 외형을 벗어날 수 없는 사진이 진정한 의미의 추상 사진이 되기 위해서는 외형을 놓아둔 채 외형을 뛰어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하려면 사물을 사물이 가진 원초적 의미에서 벗겨내어 제2의 의미로 재창조해내야 한다. 제2의 의미로 재창조된 사물은 외형상 현실적 사물의 형태는 유지하지만, 그 사물은 작가가 해석한 이미지로 현실적 사물이 아니다. 즉, 작가의 주관적 관념을 시각화한 하나의 기호인 것이다. '여인의 모습'을 통해 '여인의 고독감'을 드러내려는 추상 사진이 있다고 하자. 이 때 사진에 찍힌 '여인의 모습'은 '여인의 고독감'이라는 작가의 관념을 시각화하기 위한 기호이자 이미지이다. 추상 사진의 작가는 자신의 주관적 관념을 시각화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이질적 사물들을 조합함으로써 기이함과 신비감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태를 벗을 수 없는 사진은 형태를 극복하여 추상화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추상 사진은 외형이 아니라 외형을 뛰어넘는 의미의 창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37. (가)~(마)의 핵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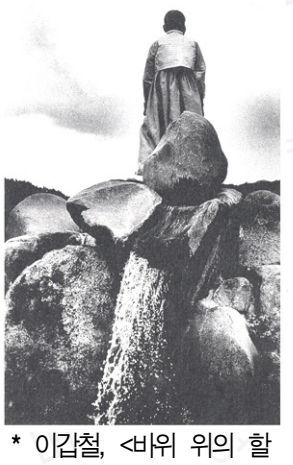
① (가) : 사진의 고유한 특성
② (나) : 현대 사진의 추상화 경향
③ (다) : 사진의 추상화를 가로막는 요인
④ (라) : 추상 사진의 발달 과정
⑤ (마) : 추상 사진의 의미와 구현 방법

3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기록사진은 사진 매체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
② 회화적 추상을 모방한 사진은 추상 사진으로 볼 수 없다.
③ 현대 사진은 추상화되면서 구체적 사물의 형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④ 회화는 구체적 사물을 통하지 않고서도 주제 의식을 드러낼 수 있다.
⑤ 추상 사진 작가는 사물의 외형을 뛰어넘는 방식을 통해 추상적 관념을 전달한다.

39.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이갑철, <바위 위의 할머니>

추상 사진에서는 때로 사람도 인격을 가진 개성적 존재가 아니라 한 개 돌덩이나 한 포기 풀과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풍경에 동원된 사물도 사물 자체의 현실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새로운 의미로 재구성되어 비현실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할머니가 폭포가 쏟아지는 벼랑 위에 서 있는 뒷모습을 찍은 이 사진은 '생(生)'과 '사(死)'의 갈림길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① 작가는 추상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바위'와 '할머니'라는 사물의 형태를 왜곡했군.
② '바위'와 '할머니'라는 대상을 비일상적으로 조합했기 때문에 독특한 분위기를 느꼈어.
③ 사진 속 '바위'와 '할머니'는 원초적 의미에서 벗어나 제2의 의미로 재창조된 이미지로군.
④ '바위'와 '할머니'라는 사물을 통해 '생(生)과 사(死)의 의미'라는 작가의 주관적 관념을 시각화했군.
⑤ '바위'와 '할머니'는 구체적 사물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작가가 창조해낸 하나의 기호라고 볼 수 있어.

40. ⓐ, ⓑ의 문맥상 의미로 가장 적절하게 묶은 것은?

	ⓐ	ⓑ
①	작가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형식의 규제를 많이 받는
②	추상적 관념의 세계를 담은	추상화하기 어려운
③	작가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튼튼하여 흔들리지 않는
④	추상적 관념의 세계를 담은	형식의 규제를 많이 받는
⑤	구체적 모습을 벗어나지 않은	튼튼하여 흔들리지 않는

【41－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사학은 변화한다. 근대 이래로 역사학에 큰 영향을 끼친 학파에 마르크스주의와 아날학파가 있다. 이 둘은 역사에 대한 상이한 관점과 서술 방식을 채택하였지만 역사 서술에서 '구조'를 중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후 사회·문화·학문의 전반에 걸쳐 절대적인 기준이나 구조를 해체하려는 탈중심의 경향이 확산되면서 역사학에도 변화의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마르크스주의나 아날학파의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틀에서는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평범한 인물들이 오히려 구조 속에 매몰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학으로 근래에 등장한 것이 '신문화사'이다.

신문화사는 구조보다는 인간의 경험에 주목하였고, 사회적 현실이 어떠했는가보다는 사람들이 그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했으며,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가에 관심을 두었다. 즉 신문화사는 ㉠ 민중들의 시시콜콜한 문화도 역사를 이끌어 온 힘이었다고 보고, 그것들의 사료적 가치를 높이 인정하면서 혁명이나 전쟁, 군주나 영웅 중심이 아니라 사소한 문화나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통해 역사를 바라볼 것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볼 때 검시보고서, 임상진료카드, 낙서 등 사람들이 의미를 새겨 넣었던 것은 무엇이든 역사의 사료로 쓸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역사 연구 방법론을 해체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다.

그렇다면 신문화사의 역사 인식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를 통해서 알아 보자. 이탈리아의 역사가 카를로 긴즈부르그의 저서 『치즈와 구더기』는 16세기의 이탈리아 북부 지방의 방앗간 주인이었던 메노키오란 인물의 삶을 ⓐ 그리고 있다. 작가는 16세기의 교회 문서에 기록된 메노키오의 일상과 이단 심문에서 했던 발언들, 그가 즐겨 읽었던 책들의 목록과 그 내용을 분석한다. 메노키오는 '우유에서 치즈가 만들어지고 치즈에 구더기가 스미는 것처럼 우주는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는 이단적 주장을 교회 심판관 앞에서 당당하게 피력하다가 처형되었다. 작가는 문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이러한 자연 발생적 우주관을 메노키오가 독서를 통해 스스로 인식했다는 점과 그의 존재는 민중 문화가 수동적으로 지배 문화를 답습한다는 종래의 관념을 뒤집는 사례라는 점을 밝혀냈다.

그런데 기존 역사학의 시각에서 볼 때 『치즈와 구더기』와 같이 개인에게 벌어진 일회성을 띠는 사건의 기록이 어떻게 그가 속한 집단이나 사회를 대표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이는 신문화사가인 에도와르도 그렌디의 '정상적 예외'란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메노키오의 경우와 같이 지배층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된 예외적인 사람은 지배층에 대항하는 피지배층의 문화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록이 정상적인 역사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지배층은 자신들의 권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피지배층의 사회적 현실을 왜곡한다. 때문에 피지배층에 대한 삶의 기록은 예외적이고 양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 기록은 피지배층의 삶과 생각에 대해 많은 것을 전해주므로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문화사는 [㉡]

4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마르크스주의와 아날학파는 역사학의 탈중심화 경향의 선두주자이다.
② 신문화사에서 예외적인 소수에 관한 기록은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③ 신문화사의 목적은 영웅 중심의 역사관과 민중 중심의 역사관의 절충을 시도하는 것이다.
④ 메노키오의 주장은 교회 문화가 지배적이던 16세기 이탈리아 사회에서는 이단적인 것이었다.
⑤ 『치즈와 구더기』는 지배 문화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피지배 문화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42. <보기>는 한국 문학의 각 갈래가 지닌 특성이다. ㉠의 관점을 적용했을 때,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끼리 묶은 것은?

< 보 기 >

ㄱ. 남녀 간의 진솔한 애정 행위나 서민들의 구체적인 생활 모습 등을 노래한 고려속요는 당시의 사람들의 삶을 추리하는 실마리가 된다.
ㄴ. 조선 초기에 발생한 시가인 악장은 나라의 공식 행사 때 궁중 음악에 맞추어 불렀던 노래로 조선 왕조의 개국과 번영을 송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ㄷ. 예로부터 민중 사이에 불려 오던 전통적인 노래인 민요는 대개 특정한 작사자나 작곡자가 없이 구전되어 내려오며 민중들의 사상·생활·감정을 담고 있다.
ㄹ. '경기하여(景幾何如)' 또는 '경(景) 긔 엇더ᄒᆞ니잇고'라는 구절이 반복되어 명칭을 얻은 경기체가는 주로 귀족들의 향락적인 생활양식과 그들의 심상을 읊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3. 위 글을 신문화사의 의의를 기술하면서 마무리 짓고자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역사에 객관적 진실은 있을 수 없고 주관적인 취향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점에 의의가 있다.
② 역사학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의 변화를 다룬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변화하지 않는 구조를 중요하게 부각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③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을 정치로 규정하고 일상에 내포된 정치적 의미를 분석하여 이를 거시적인 역사학의 기초로 삼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④ 인류의 역사는 계층 간의 갈등과 그것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의 역사라는 사실을 꿰뚫어보고 이에 맞는 역사 서술의 체계를 세운 점에 의의가 있다.
⑤ 평범한 인물들의 개인적인 역사를 복원하고, 그들로 대변되는 민중의 삶을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연구하여 역사학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44. ⓐ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화살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다.
② 그 연극은 고부간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③ 그녀는 그토록 꿈에 그리던 조국 땅을 밟았다.
④ 영수는 나에게 자기 집 약도를 자세히 그려 주었다.
⑤ 그는 지난날의 영광을 머릿속에 그리며 씁쓸하게 웃었다.

【45－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세기에 편찬된 최세진의 『훈몽자회(訓蒙字會)』는 훈민정음 자음의 명칭을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하여 밝히고, 자음과 모음의 순서를 정리한 책이다. 이 책에서 글자의 배열은 첫소리(초성)와 끝소리(종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여덟 자(ㄱ, ㄴ,ㄷ,ㄹ,ㅁ,ㅂ,ㅅ,ㅇ), 첫소리에만 쓰일 수 있는 여덟 자(ㅋ,ㅌ, ㅍ,ㅈ,ㅊ,ㅿ,ㅇ,ㆆ), 가운뎃소리(중성)에만 쓰일 수 있는 열한 자(ㅏ,ㅑ,ㅓ,ㅕ,ㅗ,ㅛ,ㅜ,ㅠ,ㅡ,ㅣ,ㆍ)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 뒤로 자음과 모음의 운용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즉 첫소리와 가운뎃소리를 합해 글자를 만드는 예(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ᄀᆞ)를 보여주고 있고, 첫소리와 가운뎃소리와 끝소리를 합해 글자를 만드는 예(각, 간, 갇, 갈, 감, 갑, 갓, 강)를 보여준다.

『훈몽자회』에서는 자음의 이름을 'ㄱ : 其役(기역), ㄴ : 尼隱(니은), ㄷ : 池末(디귿), ㄹ : 梨乙(리을) … ㅋ : 箕(키) … ㅊ : 治(치)…'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서 첫째 글자인 '其(기), 尼(니), 池(지→디), 梨(리)'는 첫소리에 사용되는 자음의 용례를 보인 것이고, 둘째 글자인 '役(역), 隱(은), 末(귿), 乙(을)'은 끝소리에 사용되는 자음의 용례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자음의 이름은 해당 자음이 첫소리와 끝소리에 모두 쓰이면 두 글자로 하고, 첫소리에만 쓰이면 '箕(키), 治(치)'와 같이 한 글자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첫소리에는 사용되지만 끝소리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한글 자음의 이름을 '기역, 니은, 디귿…'으로 부르는 것은 『훈몽자회』에 나타난 자음의 이름을 한글로 적은 것이다. ㉠ 『훈몽자회』가 현대의 자음 명칭과 다른 것이 있다면 '키, 티, 피, 지…' 등이 '키윽, 티읕, 피읖, 지읒…'으로 바뀐 것뿐이다.

그러면 자음은 어떤 원칙에 의해 순서가 정해졌을까? 『훈몽자회』에는 특별한 설명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는 훈민정음에서 기본자 'ㄱ, ㄴ, ㅁ, ㅅ, ㅇ'에 가획된 것을 해당 기본자 뒤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자의 가획 순서는 훈민정음 해례의 조음 위치에 따른 배열순서와 일치한다. 즉 '어금닛소리(ㄱ), 혓소리(ㄴ), 입술소리(ㅁ), 잇소리(ㅅ), 목구멍소리(ㅇ)'의 순서로 배열된다. 이 중 'ㅇ'은 첫소리에만 사용되므로 가획자인 'ㆆ'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ㄴ→ㄷ→ㄹ(가획과 이체)', 'ㅁ→ㅂ(가획)'등과 같은 순서로 배열된다. 첫소리에만 쓰이는 여덟 글자의 순서 역시 같은 원리로 정해졌다. '(ㄱ)→ㅋ', '(ㄴ→ㄷ)→ㅌ', '(ㅁ)→ㅍ', '(ㅅ)→ㅈ→ㅊ→ㅿ(가획과 이체)', '(ㅇ)→ㆆ(가획)' 등의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다.

45. 위 글을 바탕으로 ㉠의 이유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현대의 자음과 16세기의 자음이 같았기 때문이다.
② 현대로 오면서 새로운 자음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③ 16세기의 자음 중, 현대로 오면서 사라진 자음이 있기 때문이다.
④ 현대의 표기법에서는 해당 자음이 받침에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⑤ 16세기의 받침 표기 방식과 현대의 받침 표기 방식이 같기 때문이다.

46. <보기>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일부를 현대어로 풀이한 것이다. 위 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는 어금닛소리니 '君(군)'자 처음 발음되는 소리와 같으니라.
ㅋ는 어금닛소리니 '快(쾌)'자 처음 발음되는 소리와 같으니라.
ㆁ는 어금닛소리니 '業(업)'자 처음 발음되는 소리와 같으니라.

ㄷ는 혓소리니 'ᄃᆞ(두)'자 처음 발음되는 소리와 같으니라.
ㅌ는 혓소리니 '呑(탄)'자 처음 발음되는 소리와 같으니라.
ㄴ는 혓소리니 '那(나)'자 처음 발음되는 소리와 같으니라.

① 『훈몽자회』도 <보기>처럼 한자(漢字)를 이용하여 한글의 자음을 설명하고 있군.
② 『훈몽자회』와 <보기>는 훈민정음 해례의 조음 위치에 따라 자음을 배열했다고 할 수 있겠군.
③ <보기>는 한글 자음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지만, 『훈몽자회』는 자음의 소리를 설명하고 있군.
④ <보기>보다 『훈몽자회』의 자음 배열순서가 오늘날의 자음 배열순서와 더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군.
⑤ <보기>와 달리 『훈몽자회』는 첫소리에서만 사용되는 자음과 첫소리와 끝소리에 모두 사용되는 자음을 구분하여 배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47. 위 글과 <보기>의 신문 기사를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최근 중국에 있는 교포가 중국어를 한글로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한자(漢字)는 컴퓨터와는 어울리지 않는 문자입니다. 수만 자가 넘는 한자를 컴퓨터 자판에 다 올려놓을 수 없잖아요. 글자를 한글처럼 분해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한글로 중국어 발음만 입력하면 한자로 변환되도록 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 예로 등소평의 중국 발음인 '덩샤오핑'을 한글 자판으로 입력하면 화면에 '등소평(鄧小平)'이라는 한자가 나타나는 것을 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한글 입력 방식은 세벌식이다. 자판 배열이 첫소리는 왼쪽에, 모음은 오른쪽에, 받침은 아래쪽에 했다. '박'이라고 하면 'ㅂ ㅏ ㄱ' 등 세 자판을 동시에 누르는 것이다. 피아노 건반을 동시에 누르는 것과 비슷하다.

"중국 단둥시(市)에서는 직업학교에서 그의 입력 방식을 쓰겠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일본의 한 업체는 저작권을 팔라는 제안도 했다."고 그는 말했다.

① 적은 수의 문자로 다양한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한글의 효율성을 알려주는 사례로군.
② 한자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를 표기하는 발음 기호로도 한글을 이용할 수 있겠어.
③ 소리를 첫소리와 가운뎃소리, 끝소리로 분석하여 만든 한글의 과학성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로군.
④ 이제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漢字)도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처럼 분해해서 표기할 수 있게 되었군.
⑤ 현대 국어에서는 끝소리가 첫소리로도 쓰일 수 있으니 자판을 두 가지로 배열한 두벌식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겠어.

【48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거 대부분의 금융 거래는 현금과 수표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거래를 카드 한 장으로 처리한다. 이제 음식점, 백화점, 심지어 동네의 작은 슈퍼에서도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여기에는 플라스틱 카드 기술이 활용되었다.

플라스틱 카드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카드 뒷면에 자기(磁氣)의 성질을 띤 띠(이를 마그네틱 스트립이라고 한다.)를 두르고 있는 마그네틱 스트립 카드와 이보다 훨씬 정교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 스마트 카드로 나눌 수 있다.

[A] 마그네틱 스트립 카드는 현금 카드, 신용 카드 등으로 활용된다. 이 카드는 신원 확인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는데, 이러한 고유 번호는 카드 뒷면의 마그네틱 스트립에 기억시켜 놓는다. 마그네틱 스트립에는 일반적으로 카드 번호, 카드 소유자 성명, 유효 기간, 사용 가능 금액 등 약 200바이트 분량의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다. 여기서 각 데이터는 마그네틱 스트립의 정보 저장 구역(도메인)에 저장되는데, 도메인의 각 구역은 한 쌍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서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정보의 쌍은 '0'을,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쌍은 '1'을 의미한다. 카드 판독의 과정은 먼저 카드의 마그네틱 스트립을 판독기에 통과시키면 철심 주변의 코일에 펄스전류(아주 짧은 주기의 전류)를 유도하게 되는데, 이 전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에 의해 바이너리 코드(0과 1로만 표현되는 이진 코드)로 전환되어 컴퓨터가 인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용 카드의 경우, 확인을 위한 출력물이나 출력 화면이 생기고 이용자는 여기에 서명을 해야 한다. 현금 카드 이용자는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 번호를 입력해야 거래가 가능하다.

스마트 카드는 마그네틱 스트립 카드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이 카드에는 마그네틱 스트립 카드와는 다르게 집적회로(IC)칩이 내장되어 있다. 스마트 카드는 이 칩에 의해 고도의 연산 능력과 다양한 정보 저장 능력을 갖게 된다. 스마트 카드는 접촉 방식에 따라 크게 접촉식 스마트 카드와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로 구분된다. 접촉식 스마트 카드는 판독기와의 접촉을 필요로 하는 형태를 말한다. 판독기에 카드를 삽입하면 카드의 표면 접촉부가 판독기의 전기 연결부와 반응하여 데이터를 전달한다. 비접촉식 카드의 경우에는 카드를 안테나 근처에 통과시키면 약한 전자기 신호가 발생하여 카드 안의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따라서 이 카드는 버스나 지하철 요금과 같이 빠른 처리가 필요한 곳에 매우 적합하다.

한편 스마트 카드는 거래 절차를 카드 자체의 프로그램이 승인한다는 점에서 마그네틱 스트립 카드와 차이가 있다. 또한 스마트 카드는 중요한 비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설계된다. 이와 달리 마그네틱 스트립 카드의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보안성이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스마트 카드는 개인의 신체 정보를 보관하거나 보안 프로그램을 탑재하는 등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48. 위 글의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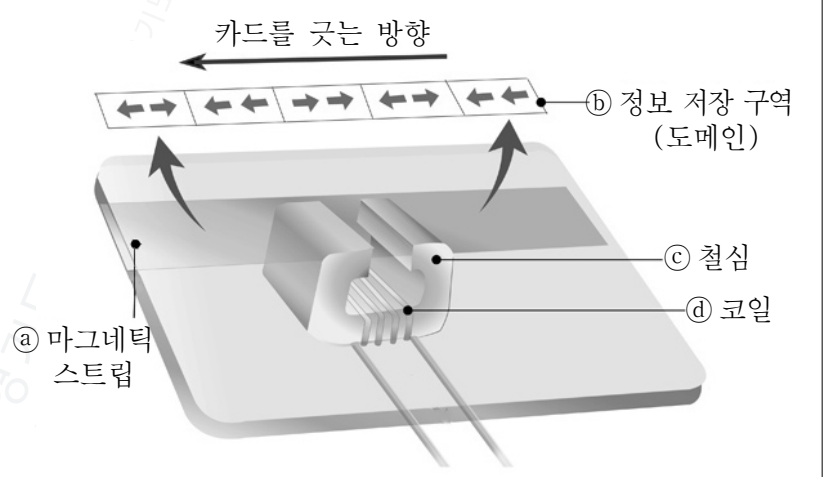
< 보 기 >

ㄱ. 두 대상 간의 특성을 비교, 대조하고 있다.
ㄴ. 대상이 작동되는 원리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ㄷ.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며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ㄹ.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9. <보기>는 [A]와 관련된 모식도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① ⓐ에는 집적회로 칩과는 달리 200바이트 정도의 정보를 담을 수 있겠군.
② ⓐ의 정보는 1차적으로 바이너리 코드로 전환되어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전달이 되겠군.
③ ⓑ가 이루는 짝을 보니 '10010'이라는 정보가 컴퓨터에 인식되겠군.
④ ⓒ와 ⓓ는 카드의 정보를 읽어내는 부분이겠군.
⑤ 카드가 ⓒ를 지나면 ⓓ에 펄스전류가 유도되겠군.

50. ㉠을 활용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씨는 교통카드 충전소에서 자신의 교통카드에 만 원어치를 충전하였다.
② 서명만 하면 해외에서도 물건을 살 수 있는 카드 상품을 △△은행에서 내놓았다.
③ ◇◇소매점에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가격 정보 관리 프로그램을 카드에 저장하였다.
④ □□기업에서 직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지문과 같은 생체 인식 정보가 들어 있는 카드를 발급하였다.
⑤ ▽▽정보회사에서 중요 내용을 인터넷으로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해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을 카드에 등록하였다.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